인문연구 제88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8, No. 1, pp.91~114
http://dx.doi.org/10.21211/JHUM.88.4

영화 「파리의 10월」을 통해 본 프랑스의 야만*

강경화**

〈차 례〉

1. 들어가며
2. 1961년 10월, 파리
3. 자크 파니젤과 영화 「파리의 10월」
 1) 자크 파니젤
 2) 「파리의 10월」 제작 과정
 3) 「파리의 10월」 상영 과정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프랑스 영화 「파리의 10월」(원제: Octobre à Paris)을 사례로 은폐되거나 망각된 역사를 영화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증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로 상징되는 공권력이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는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크 파니젤이 제작한

* 본 논문은 68 공동학술대회 〈장기 68년과 저항의 동학: 급진성의 순환에서 결정적 사건으로〉(영남대, 2019년 5월 31일-6월 1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파리의 10월」은 1961년 10월 17일 프랑스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알제리독립전쟁이 가열되던 시기, '알제리 무슬림 프랑스인'을 겨냥한 차별적인 통행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공화국 경찰의 대응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인종주의적 증오로 가득 찬 경찰의 야만적 시위 진압으로 수많은 알제리 이민자들이 희생되었으나, 이 사건은 당국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대다수 언론의 침묵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망각되었다. 1962년 영화가 완성되었으나 당국의 검열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의 상영 및 배급이 금지되었다. 검열의 족쇄가 풀린 후에도 자크 파니젤 감독은 1961년의 비극적 사건이 공권력이 자행한 '국가범죄의 원형'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하였다.

주제어: 파리의 10월, 자크 파니젤, 1961년 10월 17일, 국가폭력, 알제리전쟁, 알제리민족해방전선

1. 들어가며

영화가 탄생한 것은 19세기 말이다.[1] 움직임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이 놀라운 발명품은 즉각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며 빠르게 대중 속으로 확산되었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1) 영화의 탄생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를 통해 일련의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대중에게 선보인 1895년 12월 28일을 영화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리의 그랑카페(Le Grand Café de Paris) 지하에서 이루어진 공개상영의 입장료는 1프랑이었다. 약 3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20여 분에 걸쳐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물 뿌리는 사람」 등 총 10편이 상영되었다. 뤼미에르연구소(http://www.institut-lumiere.org) 참조.

매료시킨 영화가 '제7의 예술'로,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대중문화 상품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또한 영화는 탁월한 정치적 도구,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레닌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선전하고 혁명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영화를 적극 활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기에 영화는 보다 정교하게 조작된 문화외교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었다.[2)]

다른 한편으로, 영화라는 매체는 현실을 반영하고 역사를 증언하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함유하고 있다. 영화는 특정 시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드러낼 수 없었던 다양한 층위의 기억에 대한 고백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영화 「파리의 10월」(원제: Octobre à Paris)을 사례로, 감추어지거나 망각된 역사를 영화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증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로 상징되는 공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통해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억압의 방식과 강도가 통치의 경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영화 「파리의 10월」은 1961년 10월 17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영화가 완성된 것은 1962년이지만 오랫동안 검열의 족쇄로 인해 정식 개봉되지 못했다. 영화의 단초가 된 1961년 10월의 비극은 알제리전쟁과 관련하여 프랑스 사회를 분열시켰던 고문, 하르키(harkis), 피에누아르(pieds-noirs), 프랑스군의 극우 지하조직 OAS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20세기 중반 프랑스

2) 냉전기 외교전략으로서의 영화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강경화, 「프랑스의 소비에트 영화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41권 제3호, 2017 참조.

사회의 두 얼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2. 1961년 10월, 파리

1961년 10월 5일, 파리 경시청장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은 프랑스의 수도에 통행금지령을 내린다. 통행금지가 적용되는 시간은 저녁 8시 반부터 뒷날 오전 5시 반까지였으며, 그 대상은 '알제리 무슬림 프랑스인'으로 특정되었다.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의 오랜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려는 무력항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이하 FLN)이 있었다.[3] 피식민지인의 폭동에 대해 프랑스

3) 프랑스 복고왕정의 샤를 10세가 국민의 신망을 되찾고 지중해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알제리 침공을 개시한 것은 1830년 6월이다. 프랑스 침공군에 대항하며 민족운동 항쟁을 이끌었던 압델카데르의 항복 선언(1847.12.) 이후, 알제와 오랑, 콘스탄틴 등이 프랑스의 행정구역 3개 도(道)로 편입되었다(1848). 1858년에는 식민지부가 창설되는 등 프랑스에 의한 알제리 식민통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130년 넘게 지속되었다. 1954년부터 전개된 '알제리독립전쟁'은 1962년 '에비앙 협정'(Accords d'Evian)의 체결로 종식되었다. FLN은 당시 알제리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알제리민중당(PPA-MTLD)에서 분리되어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1954년 11월 1일 전쟁 선언과 함께 식민주의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독립을 위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오랫동안 비폭력을 지향해왔던 알제리의 민족운동이 1950년대 들어 폭력투쟁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쟁으로 치닫게 된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히 알제리 원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간적 차별이었다. 외무부가 관장했던 튀니지, 모로코와는 달리 내무부가 통치하는 특별한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인은 '프랑스인'으로도, 그렇다고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식민지 원주민'(indigènes), '프랑스 국적자'(sujets français), '알제리 무슬림 프랑스인'(Français musulmans d'Algérie) 등으로 지칭되며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당해야 했다. 노서경, 『알제리전쟁』, 문학동네, 2017, pp. 26-30; Françoise de Barros, "Des 'Français musulmans d'Algérie' aux 'immigrés'. L'importation de classifications coloniales dans les politiques

는 폭력적인 진압과 무차별적인 학살, 고문 등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맞서 FLN은 식민 본국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불특정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FLN의 테러 공격의 표적은 점차 프랑스 공화국 경찰을 겨냥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경찰조직의 희생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취해진 통행금지령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내세운 특단의 조치였다.

한편, 파리 지역에 정착한 알제리 이주민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형성된 빈민촌에서 생활하였으며, 1960년대 가장 많은 알제리인들이 밀집된 곳은 파리 서쪽에 위치한 낭테르(Nanterre) 산업지구이다.[4] 그들 대다수는 물도, 전기도,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단칸방에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FLN은 알제리 이주민을 겨냥한 인종주의적인 차별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파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였다. FLN 지도부는 파리 및 인근 외곽에 거주하던 알제리인들을 대상으로 10월 17일 화요일 시위 참가를 독려하였다. 시위를 조직한 FLN 지도부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세우고 시위참가자들에게 인지시켰다. 일체의 무기 혹은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물건의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며,

---

du logement en France(1950 - 1970)",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59, 2005, pp. 26-53; 프랑스이민사박물관(http://www.histoire-immigration.fr) 참조.

4) 내무부는 낭테르 산업지구에 형성된 약 13개 빈민촌 이주민들의 수를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Le Monde*(2011.10.17.), "La 'bataille de Paris' racontée par les archives du 'Monde'" 재인용). Cédric David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빈민촌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3년 35,000명에서 1965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75,000명에 이르렀으며, 1968년에는 파리 지역의 빈민촌에만 약 4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Cédric David, "La résorption des bidonvilles de Saint-Denis. Politique urbaine et redéfinition de la place des immigrants dans la ville(années 1960-1970)", *Histoire urbaine*, 27, 2010, pp. 121-122 참조.

시위 행렬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시위대에게로 향할 수 있는 어떠한 모욕적 언사나 도발에도 일체 반응하지 말 것 등이었다. 요컨대 행진을 전제로 한 평화적인 시위로 준비되었다. 따라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알제리인들이 시위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그 수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 파리 도심을 향해 걷는 시위대의 유일한 무기는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며 외치는 몇 마디 구호가 전부였다. 그들의 외침은 인종차별적인 통행금지 조치의 철회, 조국 알제리의 독립, 벤 벨라[5]의 석방 등이었다.

치안 유지를 위해 나선 공권력의 대응은 단순히 대규모 시위대의 해산이 아니었다. 평화적인 행진을 이어가던 알제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총,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다양한 위계의 경찰병력이었다. 시위대를 향한 진압은 잔혹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총성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지는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토끼몰이식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몽둥이질, 발길질에 파리 도심은 곧 아비규환으로 변하였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시위대 사이로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지는 알제리인들이 거리 이곳저곳에 나뒹굴었다.[6]

그날 시위로 체포된 알제리인은 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경찰호송차만으로 그들을 실어 나를 수 없는 상황에서 파리교통공단(RATP)의 일반 버스까지 동원되었다. 그렇게 사냥감이 된 수많은 알제리인들은 파리 경시청 안마당으로, 그리고 파리 남서쪽의 경

---

5) FLN의 지도자인 벤 벨라(Ahmed Ben Bella)는 당시 프랑스 군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었다. 1956년 프랑스는 FLN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벤 벨라를 납치하였다.

6) Jean-Luc Einaudi, "Un jour d'Octobre à Pari", *Le Genre humain*, 18, 1988, pp. 25-36; *L'Express*(2012.3.13.), "Le 17 octobre 1961 raconté par Jacques Derogy" 참조. 특히 『렉스프레스』지의 기사는 당시 시위현장에 있었던 자크 드로지 기자가 직접 목격한 시위 모습, 행인들의 반응,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 희생자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기장(Stade Pierre de Coubertin)이나 스포츠센터(Dôme de Paris-Palais des Sports) 등의 대형 시설로 분산되어 구금되었다.[7] 이후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조국 알제리에서 프랑스 군부에 의해 이미 자행되었던 폭력적인 취조와 고문이었다.

10월 17일 시위로 인한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위해 꾸려진 위원회나 관련 주제에 천착해 온 연구자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최근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알제리인 희생자는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로 추산된다.[8] 하지만

---

7) *Le Monde*(2011.10.17.), *op.cit.*

8)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희생자 파악,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필연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당국의 문서고는 40여 년 가까이 철저하게 접근이 금지된 채 봉쇄되어 있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1997년이다. 슈벤느망 내무부 장관이 국가참사원 판사 만델케른(Dieudonné Mandelkern)을 의장으로 한 최초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만델케른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희생자 수를 최소 4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이듬해 법무부 주도 아래 대법관 제로니미(Jean Geronimi)가 이끈 두 번째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제로니미 위원회'가 제시한 시위 당일 사망자 수는 최소 48명이었다. 하지만 익사한 희생자들 중 일부의 시신이 센 강 하류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망자는 분명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에 덧붙여 제로니미 위원회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문서고의 자료가 대단히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진상을 규명하고 알리고자 노력했던 초기 연구자 중 하나인 역사학자 장-뤽 에노디는 FLN의 문서고, 프랑스인이나 알제리인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수를 2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특히 1961년 9월~10월 두 달 동안 경찰에 의해 희생된 알제리인의 수를 총 32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역사가 장-폴 브뤼네는 당시 경찰 및 장관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희생자는 3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조사 방식과 주장은 이후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크게 반박되었다. 2000년대 말, 방대한 경찰 문서고를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두 명의 영국 역사가는 구체적인 희생자의 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9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 120명이 훨씬 넘는 알제리인들이 파리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결론내린다. *Le Nouvel Observateur*(2012.10.18.), "Guerre des chiffres: combien de morts le 17 octobre 1961?"; Jean-Luc Einaudi(1998), *op.cit*; Jean-Paul Brunet, "Enquête sur la nuit du 17 octobre 1961", *Les Collections de*

그날, 공권력이 보여준 야만은 단지 사망자 수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위 다음 날부터 파리의 운하, 센 강에서는 물에 퉁퉁 불은 시체들이 떠올랐으며, 파리 인근의 숲에서도 처참한 몰골의 알제리인들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파리 경시청 안마당으로 끌려와 죽임을 당했던 알제리인들의 시신 40~50구가 경찰에 의해 그대로 센 강에 던져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 중에서는 산 채로 강물 속으로 강제로 내던져진 이들도 있었다. 이는 구사일생으로 강물을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진 이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9)]

시위 다음 날, 프랑스 당국은 알제리인들의 '폭력시위'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10)] 그날의 사건과 진실에 대한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의 노력은 이후 오랫동안 강하게 그 힘을 발휘하였다. 당국의 언론 검열이 강화된 가운데 대다수 언론은 침묵하였으며 프랑스 시민들의 무관심은 집단적 기억상실로 이어졌다.[11)] 그동안 10월의 비극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주로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파리 경시청장으로서 법적 정당성이 없는 인종주의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찰들의 강

L'Histoire, 15, 2002: Jim House & Neil MacMaster, *Les Algériens, la terreur d'Etat et la mémoire*, Editions Tallandier, 2008 참조.

9) Jean-Luc Einaudi, *op.cit*

10)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는 1961년 10월 18일자 1면에 '알제리 무슬림의 폭력시위'를 머리기사로 게재하였다. 경시청 수치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전날 시위로 인해 사망자 2명, 부상자 44명이 발생하였으며 7,500명의 북아프리카인이 체포되었다. *Le Nouvel Observateur, op.cit*

11) 그날의 비극을 다룬 출판물 대부분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압수되었으며, 대다수 언론은 당국의 검열 제재로 인해 알제리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을 제대로 기사화하지 못했다. 사건을 다룬 르몽드, 르피가로 등 일부 언론 역시 대체로 '체포된 시위대들을 향한 잔혹한 폭력'이 있었지만 '흥분한 경찰의 난폭함도 이해'한다는 논조를 유지하였다. Isabelle Saint-Saëns, "17 octobre 1961: archéologie d'un silence", *Vacarme*, 13(3), 2000, p. 19.

압적인 시위 진압을 부추긴 모리스 파퐁이었다. 그는 이미 알제리에서 행했던 억압적인 식민통치 시스템 차용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 수상, 로제 프레(Roger Frey) 내무부 장관 그리고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에 이르는 권력 수뇌부의 침묵의지는 '1961년 10월 17일'을 오랫동안 프랑스인들의 집단기억에서 망각시켰다.[12]

3. 자크 파니젤과 영화 「파리의 10월」

1) 자크 파니젤(Jacques Panijel)

자크 파니젤의 영화 「파리의 10월」은 작품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감독의 이름조차 국내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생물학자인 자크 파니젤은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CNRS)의 연구원으로, 1957년 '오댕위원회'(Le Comité Maurice-Audin) 설립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이다. 고문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오댕위원회는 알제 대학의 젊은 수학자 모리스 오댕(Maurice Audin)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알제리공산당(PCA) 당원이자 알제리독립을 지지했던 그는 1957년 6월 11일, 프랑스 공수부대에 의해 자신의

12) 2017년 출간된 마리-오딜 테르누아르의 저서는 10월의 비극을 촉발시켰던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드골 정권하에서 장관을 역임하고 특히 알제리전쟁이 가열될 당시 정부 대변인을 수행했던 루이 테르누아르의 딸이다. 저자는 문서보관소의 자료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일기나 국무회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들을 오랫동안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비극적인 10월 사건의 책임을 당시 프랑스의 우파 지도부의 몫으로 강조하고 있다. Marie-Odile Terrenoire, *Voyage intime au milieu de mémoires à vif. Le 17 octobre 1961,* Editions Recherches, 2017.

집에서 체포된 후 돌아오지 않았다. 오댕위원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당국의 거짓 해명과 달리, 모리스 오댕의 죽음이 군부의 고문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13]

FLN에 의한 알제리인들의 시위가 예정된 10월 17일 저녁은 오댕위원회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샹젤리제 대로를 따라 걷던 자크 파니젤은 두 줄로 늘어선 제복차림의 경찰들 사이로 수백 명의 알제리인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현장을 목도하였다. 그는 당국의 은폐와 대다수 언론마저 침묵한 그날의 사건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댕위원회에 영화 제작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제한된 관객을 대상으로 비상업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영화가 아닌, 명성과 파급력을 지닌 기성 감독의 연출이 필요했다. 기성 영화계의 오랜 권위주의에 반발하며 영화사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누벨바그 영화인들과 할리우드를 비롯한 해외의 유명 감독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난색을 표했다.[14]

---

13) 오댕위원회는 1957년 11월 파리에서 만들어졌다. 자크 파니젤 외에 피에르 비달-나케, 마리안 드부지 등의 역사가, 훗날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뤼크 몽타니에, 스탕달 전문가 미셸 크루제 등 주로 대학의 지식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오댕 실종사건을 다룬 책 출간, 고문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 언론을 통한 사건의 공론화,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고문 투쟁을 이어왔다. 오댕위원회의 오랜 투쟁은 최근 그 확고한 결실을 맺었다. 2018년 9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리스 오댕의 미망인 조제트 오댕(Josette Audin)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남편의 죽음이 프랑스군의 고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프랑스공산당(PCF) 대표 피에르 로랑(Pierre Laurent)의 표현처럼 '진실과 정의의 역사적 승리'였다. François-René Julliard, "Le Comité Audin: les intellectuels contre la torture en Algérie", *L'histoire,* 454, 2018; *Le Figaro*(2018.9.13.), "Macron demande pardon à la veuve de Maurice Audin"; "Guerre d'Algérie: Macron relance le débat mémoriel". 모리스 오댕 실종사건 및 알제리에서 자행된 프랑스군의 고문에 관해 다룬 국내 문헌으로는 노서경, 앞의 책, pp. 168-181 참조.

14) 유일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는 장 루쉬(Jean Rouch)감독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35mm 영화제작에 따른 부담 대신 16mm의 소형 독립영화로 만들기를 원했다. Jean-Philippe Renouard et Isabelle Saint-

결국 파니젤이 직접 영화 제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15]

영화 제작은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었다. 우선 그날의 시위현장을 담은 자료 이미지나 영상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역사적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는 영화를 통해 단순히 그날 자행된 공권력의 인종차별적인 조치와 반인륜적 범죄만을 재현하고자 하지 않았다. 국가범죄로 규정되어야 할 야만적 시위 진압을 규탄함과 동시에, 프랑스 땅에 거주하는 알제리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 즉, 인종차별과 지독한 가난, 사회적 무관심과 배척 등 프랑스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파니젤은 강제된 침묵 속에 체념한 알제리인들에게 스스로,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파니젤이 만들고자 했던 영화는 또 다른 증오와 분노 혹은 복수심을 조장하기보다는, 타인의 삶과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2) 「파리의 10월」 제작 과정

영화는 1961년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3월 완성되었다. 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0월 17일 시위'를 중심으로, 시위 '이전' 그리고 '이후'이다. 검은 화면 위로 북아프리카인 특유의 프랑스어 발음과 억양을 지닌 한 남자

Saëns, "Festivals d'un film maudit: entretien avec Jacques Panijel", *Vacarme,* 13(3), 2000, pp. 20-23 참조.

15) 앞서 자크 파니젤은 장-폴 사시(Jean-Paul Sassy)와 함께 장편영화 「살과 뼈」(원제: La Peau et les Os)를 연출한 바 있다. 1961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살과 뼈」는 주로 독창적이고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장비고 상(Prix Jean-Vigo)을 수상하였다. 1960년 장비고 상 수상자는 「네 멋대로 해라」를 연출한 장-뤽 고다르 감독이었다. 칸 영화제 공식사이트(http://festival-cannes.com/fr) 참조.

의 목소리로 영화는 시작된다. 자신을 카데(Kader)라는 이름의 알제리인이라고 밝힌 그 남자는 지금부터 보고 듣게 될 모든 것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임을,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는 그날의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것도 프랑스인에 의해 제작된다는 사실에 놀람과 감동을 표한다.

쏟아지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운치 있는 예술의 다리(Pont des Arts), 그리고 유람선이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아름다운 센 강의 전경이 펼쳐진다. 조국을 떠나 프랑스로 온 이유를 설명하는 영화 속 알제리인들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말을 걸고, 영화관이 널려 있고, 그들을 반겨주는 식민지 본국의 시민들이 있는 파리에서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그림 1). 그들을 반겨줄 식민 본국의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등져야 했던 알제리에서 보았던 프랑스인들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프랑스 드림'을 꿈꾸며 평화롭게 시작된 영화는 그들의 꿈이 곧 악몽으로 변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림 1〉



오프닝 크레디트에는 영화 제작을 지원한 오댕위원회와 제목이 연이어 나타날 뿐 자크 파니젤 감독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그림 2). 이것은 영화가 단지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일단의 프랑스인들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속 인물들과 장소, 사건들은 모두 실제 사실임을 강조하는 자막이 이어진다.

〈그림 2〉



영화는 알제리인들이 FLN의 요청에 따라 그날의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낭테르와 젠느빌리에(Gennevilliers) 빈민촌의 알제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파리로 향하는 시위행렬을 이루는 장면이 등장한다(그림 3).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영상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파니젤은 실제 파리 및 인근 지역의 빈민촌에 거주하는 알제리 주민들을 출연시켜 과거를 재현해 내었다.

〈그림 3〉



영화 제작의 단초가 된 1961년 10월 17일 사건의 사실성을 담보하 기 위해 실제 그날을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구하는 일은 당국의 언론 검열로 쉽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그날의 시위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프리랜서 사진가 엘리 카강(Elie Kagan)은 찾을 수 있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은 영화의 사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자 역사적 증거가 되었다(그림 4). 엘리 카강이 영화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그날의 현장 사진들을 파니젤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연출기법과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음향, 대사, 영상, 침묵 등과 적절히 편집된 엘리 카강의 사진들은 몽타주 효

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16]

〈그림 4〉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지도 모를 증인은 센 강에 던져졌던 인물일 것이다. 경찰에 의해 강물 속으로 내동댕이쳐졌던 그는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았다'며 안도하고 있다. 함께 던져진 다른 두 명의 알제리인은 살아남지 못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파니젤은 앞서 시위 출발 장면에서처럼 재연을 통한 연출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여 그 상황을 재현하는 대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증인의 증언을 따라 카메라는 다리 난간, 강물, 헤엄쳐 나온 강둑, 밤새 몸을 숨긴 헛간 등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이다. 상상은 오롯이 관객의 몫이 된다.

〈그림 5〉



16) 엘리 카강이 찍은 사진들은 오늘날 영화 「파리의 10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실제 영화 속에서 그 사진들이 사용된 시간은 전체 분량 중 3~4분 정도에 불과하다.

영화는 야만의 역사가 현재 반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끝난다. 파니젤이 한창 영화를 제작하고 있던 1962년 2월 8일, 파리에서는 프랑스의 극우 비밀군사조직인 OSA (Organisation Armée Secrète)와 알제리전쟁에 반대하는 공화국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파리 11구에 위치한 지하철 샤론느 (Charonne) 역 광장에서 사망한 9명의 희생자는 알제리 이방인들이 아니었다.[17]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한 죽음이었다. 영화는 파시스트적인 공권력의 잔혹함과 야만적인 총구가 이방인이라 간주되는 사람들만을 겨냥하지 않음을, 그리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10월 17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림 6〉



3)「파리의 10월」상영 과정

1962년 봄, 영화가 완성되었다. 하지만「파리의 10월」은 프랑스 내에서의 상영은 물론, 외국으로의 수출도 금지되었다.[18] 검열당

17) 시위현장에서 사망한 이는 8명이었으며,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4월 20일 사망하였다.

18) 알제리전쟁기에는 특히 1961년 법령으로 프랑스 당국의 영화검열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총체적 실상은 검열기구나 관련 법규, 검열관, 검열의 작동양상 등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영화검열은 전면금지, 특정 장면 삭제를 조건으로 한 허가, 16세 청소년 관람 금지, 수출금지, 프랑스 및 프랑스령 특정 지역에서의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행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Sébastien Denis, "Métaphores cinématograpiques en situation coloniale. Le cas de la censure francçise en Algérie", *1895,*

국에 요청한 상영허가증 교부는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되었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공식적인 언론시사회도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크 파니젤은 1962년 7월부터 공권력이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상영을 시도해 나갔다. 영화 상영은 은밀히 준비되고 실행되었지만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상영이 중단되거나 필름을 뺏기는 일이 빈번하였다. 자크 파니젤은 칸(Cannes)과 베니스(Venezia)의 국제영화제나 학술 심포지엄 등의 기회를 통해서도 「파리의 10월」 상영을 시도하였다. 1962년 5월, 국내외 수많은 언론이 모여드는 '칸 영화제' 기간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파리의 10월」이 상영되었으나 이 소식을 다루고자 지면을 할애한 프랑스 매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19] 같은 해 8월,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이탈리아 경찰이 상영관을 폐쇄하기 전까지 며칠에 걸쳐 「파리의 10월」이 상영되었다. 이 소식을 다룬 한 이탈리아 신문의 기사 제목은 「1962년, 진실이 베니스에 폭탄을 투하하다」였다.[20] 이후 1968년 5월, 이른바 '68운동'의 열기가 뜨겁게 분출되던 파리 소르본 대학 근처 독립영화관(Les Trois Luxembourg)에서 「파리의 10월」이 상영되었다.[21]

「파리의 10월」에 대한 검열의 족쇄가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48, 2006; "L'impossible fiction. De quelques projets de films sur la guerre d'Algérie à la fin des années 1950", *1895*, 64, 2011 참조.

19) 자크 파니젤에 따르면, 영화 상영을 위해 칸 시내 앙티브 거리(Rue d'Antibes)의 한 공간을 임대하였으며, 금지된 영화의 상영을 주요 기사로 다룬 것은 미국의 연예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유일했다. Jean-Philippe Renouard et Isabelle Saint-Saëns, *op. cit.* p. 22.

20) *Ibid.* pp. 22-23.

21) 예술실험영화(film Art et Essai)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이 극장에서 당시 프랑스 당국의 검열로 상영이 금지되었던 두 편의 영화가 교대로 선보였다. 「파리의 10월」과 함께 상영된 영화는 질로 폰테코르보(Gillo Pontecorvo) 감독의 1966년작 「알제 전투」(La Battglia di Algeri)이다.

한 영화인의 목숨을 건 헌신적 투쟁 덕분이었다. 바로 르네 보티에(René Vautier) 감독이다. 젊은 시절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그는 알제리전쟁 동안 알제리인의 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펼쳤던 얼마 되지 않는 프랑스인 중 하나이다. 1956년 프랑스 최초의 반식민지주의 영화 「아프리카 50」(Afrique 50)을 제작하여 상영금지 처분과 함께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그는 알제리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프랑스영화로 간주되는 「오레스에서 스무살이었네」(Avoir vingt ans dans les Aurès)로 1972년 칸 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상(FIPRESCI)을 수상하였다.

「파리의 10월」에 대한 상영금지에 분개한 르네 보티에는 1973년 1월 1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영화검열위원회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영화를 검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것, 그리고 정치적 기준을 잣대로 삭제나 상영금지처분을 금할 것 등이었다. 한 달간 지속된 르네 보티에의 단식투쟁과 알랭 레네(Alain Resnais), 로베르 앙리코(Robert Enrico), 클로드 소테(Claude Sautet) 등 다른 영화인들의 지지로 마침내 그의 요구가 관철되었고 영화검열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검열위원회는 금지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했으며, 포르노나 폭력성 정도에 대해서만 개입하도록 검열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22] 1973년, 마침내 「파리의 10월」에 대한 공식적인 상영허가증이 교부되었다.

5. 나오며

「파리의 10월」에 대한 검열의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오랫동안

22) *Le Monde*(2011.10.14.), "Le cinéaste René Vautier se souvient"

영화는 어둠의 경로로 떠돌아야 했다. 검열의 관문은 통과했지만 극장 상영을 위한 실질적인 '배급'의 길은 여전히 멀었다. 검열 당국이 교부한 허가증과는 별개로 파니젤 감독은 영화의 공식적인 상영과 배급을 위해 내세웠던 조건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그것은 바로 1961년 10월 17일 파리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공권력의 잔혹한 진압으로 발생한 1961년 10월 알제리인 학살이 '국가범죄의 원형'이라는 점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다. 2010년 9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타계할 때까지 파니젤 감독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죽고 난 후, 필름을 보관하고 있던 배급사(Les Films de l'Atalante)는 파니젤 감독의 유족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영화 개봉을 결정하였다. 정의를 센 강에 던져버렸던 1961년 10월의 비극이, 반세기가 지난 2011년 10월 마침내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23]

「파리의 10월」은 어쩌면 지극히 편파적인 시각의 영화일지 모른 다. 영화는 오직 알제리인의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만을 들려주고 있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진압이 왜 그토록 잔혹했는지, 수수께끼와 같은 경찰의 증오심이 도대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24]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물학자

23) 2012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1961년 10월 17일 사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알제리인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은폐된 역사에 대한 중대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2017년에는 대통령 후보자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 식민통치를 '반인간적인 범죄이자 진정한 야만'으로 표현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크 파니젤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프랑스가 10월 17일 사건을 명백한 '국가범죄'나 인종주의적인 '학살'로 규정하는 공식적인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L'Humanite* (2017.10.17.), "Mémoire. Le crime d'Etat du 17 octobre 1961 toujours pas reconnu"

인 자크 파니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파리의 10월」을 통해 궁극적으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국가 역시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어울릴 법한 잔혹한 국가범죄를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증오에 찬 조직적인 국가폭력 앞에 무기력했던 증인이었다는 수치심 이 집단적 수치심으로 바뀌기를 나는 한없이 염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알제리전쟁의 온갖 잔혹함이 집약되었던, 1961년 10월 17일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기억들이 프랑스의 방방곡곡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야만적 인종주의의 창궐을 막는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25]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역설한 바처럼, 파시스트 사회는 소수자들에 대한 다수의 무관심과 배척으로 배양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 자크 파니젤의 활동과 영화 「파리의 10월」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발 딛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큰 울림과 함께 우리 내부에 대한 성찰의 단초가 될 것이다.

---

24) 자크 파니젤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당초 그가 영화 제작을 결심한 것은 대다수 프랑스인들이 외면한 알제리인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발언권'을 주기 위함이었다. Jean-Philippe Renouard et Isabelle Saint-Saëns, *op.cit.* pp. 20-21.

25) 2000년 10월 21일 파리에서 개최된 10월 사건 기념 심포지엄. Olivier Le Cour Grandmaison(dir.), *Le 17 octobre 1961, un crime d'État à Paris*, Editions La Dispute, 2001, p.253.

참고문헌

1. 논문

강경화, 「프랑스의 소비에트 영화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1945-1955)」, 『동유럽발칸연구』 제41권 제3호, 2017, pp. 61-85.

노서경, 「하르키(Harkis) 문제-사라진 증언들」, 『Homo Migrance』 제2권, 2010, pp, 23-50.

Alidières, Bernard, "La guerre d'Algérie en France métropolitaine: souvenirs 'oubliés'", *Hérodote* 120, 2006, pp. 149-176.

Bertin-Maghit, Jean-Pierre, "Le monde du cinéma français sous l'Occupation: ou 25 ans de questions aux archives",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88, 2004, pp. 109-120.

Blanchard, Pascal, "L'image des Maghrébins dans les films postcoloniaux français traitant du temps colonial ou de la guerre d'Algérie" , *Migrance* 37, 2012, p. 19.

Brunet, Jean-Paul, "Enquête sur la nuit du 17 octobre 1961", *L'Histoire* 15, 2002, pp. 100-101.

David, Cédric, "La résorption des bidonvilles de Saint-Denis. Politique urbaine et redéfinition de la place des immigrants dans la ville (années 1960-1970)", *Histoire urbaine* 27, 2010, pp. 121-142.

De Barros, Françoise, "Des 'Français musulmans d'Algérie' aux 'immigrés'. L'importation de classifications coloniales dans les politiques du logement en France(1950 - 1970)",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59, 2005, pp. 26-53.

Denis, Sébastien, "Metaphores cinematograpiques en situation coloniale. Le cas de la censure francaise en Algerie", 1895 *Mille huit cent quatre-vingt-quinze* 48, 2006, pp. 6-25.

Denis, Sébastien, "L'impossible fiction. De quelques projets de films sur la guerre d'Algérie à la fin des années 1950", *1895. Mille huit cent quatre-vingt-quinze* 64, 2011, pp. 50-63.

Dumont, Marie, "Les européens dans la ru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206(2), 2002, pp. 59-85.

Einaudi, Jean-Luc, "Un jour d'Octobre à Paris", *Le Genre humain* 18, 1988, pp. 25-36.

Gacon, Stéphane, "Les amnisties de la guerre d'Algérie(1962-1982)", *Histoire de la justice* 16, 2005, pp. 271-279.

Gauthier, Christophe, "Le cinéma: une mémoire culturelle", 1895. *Mille huit cent quatre-vingt-quinze* 52, 2007, pp. 9-26.

Jeancolas, Jean-Pierre, "Cinéema, censure, controle, classement", *La Censure en France,* Bruxelles: Complexe, 1997, pp. 213-221.

Julliard, François-René, "Le Comité Audin: les intellectuels contre la torture en Algérie", *L'histoire* 454, 2018. https://www.lhistoire.fr/le-comit%C3%A9-audin%C2%A0-les-intellectuels-contre-la-torture-en-alg%C3%A9rie(검색일: 2019.5.12.)

Miraglia, Anne Marie, "Le roman franco--algérien: lumière sur le 17 octobre 1961", *RELIEF* 11(2), 2017, pp. 67-83.

Renouard Jean-Philippe et Saint-Saëns Isabelle, "Festivals d'un film maudit: entretien avec Jacques Panijel", *Vacarme* 13(3), 2000, pp. 20-23.

Saint-Saëns Isabelle, "17 octobre 1961: archéologie d'un silence", *Vacarme* 13(3), 2000, pp. 19.

Schilling Derek, "'Avoir vingt ans dans les Aures' de René Vautier: Le cinéma militant face à la censure d'État au tournant des années 1970", *French Cultural Studies* 22(2), 2011, pp. 137-150.

Shepard, Todd, "L'exrême droite et 'Mai 68'. Une obsession d'Algérie et de virilité", *Clio. Histoire, femmes et sociétés* 29, 2009, pp. 37-57.

Stora, Benjamin, "La guerre d'Algérie dans les médias: l'exemple du cinéma", *Hermès, La Revue* 52, 2008, p. 33-40.

Thénault, Sylvie, "Des couvre-feux à Paris en 1958 et 1961: Une mesure importée d'Algérie pour mieux lutter contre le FLN?, *Politix* 4, 2008, pp. 167-185.

Thénault, Sylvie, "La disparition de Maurice Audin. Les historiens à l'epreuve d'une enquête impossible(1957-2014)", Histoire@Politique 1, 2017, pp. 140-153.

Yahi, Naïma, "Le métissage en salle ou les 'Algériens' à l'écran", *Hommes & migrations* 1295, 2012, pp. 130-142.

2. 단행본

노서경, 『알제리전쟁 1954-1962: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 문학동네, 2017.

에마뉘엘 피에라 외 지음, 권지현·김기태 옮김, 『검열에 관한 검은책』, 알마, 2012.

Donfu, Eric, *Ces jolies filles de mai: 68, la révolutions des femmes,* Paris: Editions Jacob-Duvernet, 2008.

Einaudi, Jean-Luc, *La bataille de Paris, 17 octobre 1961,* Paris: Seuil, 1999.

Garreau, Laurent, *Archives secrètes du cinéma français (1945-1957),* Paris: PUF, 2008.

Herve, Frederic, *Censure et cinéma dans la France des Trente Glorieuses,* Paris: Nouveau Monde Editions, 2015.

House, Jim et MacMaster Neil, P*aris 1961 : Les Algériens, la terreur d'Etat et la mémoire*, Paris: Editions Tallandier, 2008.

Hubert, Nicolas, *Éditeurs et éditions en Franc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Paris: Editions Bouchène, 2012.

Le Cour Grandmaison, Olivier (dir.), *Le 17 octobre 1961, un crime d'Etat à Paris,* Paris: Editions La Dispute, 2001.

Péju, Marcel et Péju, Paulette, *Le 17 octobre des algériens,* Paris: La Découverte, 2011.

Terrenoire, Marie-Odile, *Voyage intime au milieu de mémoires à vif: Le 17 octobre 1961,* Paris: Editions Recherches, 2017.

Vezyroglou, Dimitri (dir.), *Le cinéma: une affaire d'Eta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4.

3. 인터넷 사이트

http://www.cinearchives.org/
http://www.cnc.fr/web/fr
http://www.festival-cannes.com/fr/
http://www.cinematheque.fr/
http://www.histoire-immigration.fr/
https://www.humanite.fr/
http://www.institut-lumiere.org

https://www.lemonde.fr/
https://www.lexpress.fr/
https://www.liberation.fr/

(투고일: 2019. 8. 16 심사완료일: 2019. 9. 20 게재확정일: 2019. 9. 23)

강경화
소속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101동 308호
전자우편 : gangadine@hanmail.net

[Abstract]

State Violence of the 1960's in France : focused on the film 「October in Paris」

Kang, Kyung-hwa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an example of the French film 「October in Paris」(original title: Octobre à Paris) and examine how the film reminds use of a hidden or oblivious history in french cinema and in the process, we will reflect on how the nation suppresse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us conceals uncomfortable truths. The peaceful demonstration of the Algerians in Paris on October 17, 1961 was brutally suppressed by indiscriminate public power and left numerous victims. The cover-up and curtailment by french government over the tragic drama of the day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October 17, 1961' has long been forgotten or concealed in France's collective memory.

「October in Paris」is a documentary film about this tragic event in Paris. The movie ends with a warning that the history of barbarism is now repeated and can be repeated in the future.

Film production was completed in March 1962, but 「October in Paris」 was banned from screening in France as well as not being allowed to be distributed to foreign countries. The request for a screening permit was denied by censorship authorities without any reason given. The film finally made its appearance in October 2011.

Key words : October in Paris, Jacques Panijel, 17 October 1961, State violenc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National Liberation Front